

취재기자

-조하연

두산베어스의  
팬이다.

보도본부에서  
맞접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인문테마스쿨 보도본부 oojoo1119@naver.com

## 야구장에서 토론 찾기

2019 KBO 한국시리즈 4 차전 10 회말 1 아웃, 그전까지 잘 던지고 있던 투수가 갑자기 교체되는 보기 드문 상황이 펼쳐졌다. 두산 베어스의 감독이 투수 교체 없이 마운드를 방문할 수 있는 헛수인 2 회를 어긴 것이다. 감독은 마운드 방문 전 올라가도 되냐고 먼저 심판에게 물었고, 심판은 이를 실수로 허락했다. 하지만 이후 심판은 헛수를 착각했다는 사실을 알고 갑작스러운 투수교체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두산이 승리하며 경기는 문제없이 끝났지만 실수를 하고도 웃으며 '좀 봐줘~'라는 말을 하는 심판진의 카메라에 잡히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야구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심판진의 실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어도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정에 없던 투수교체로 인해 두산이 4 차전에서 패배했다면 한국시리즈 우승팀이 바뀌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 프로야구에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심판의 판단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야구 오심 모음' 동영상들의 조회수가 100 만회가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 야구 팬들도 심판의 일관성 없는 판정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음주나 약물, 도박을 한 선수에 대한 처분, 선수나 코칭스태프 임용에 있어서 구단의 부적절한 대우 등 프로야구는 항상 다양한 논란거리로 안고 있다. 10 월 29 일 오후, 야구를 잘 아는 사람 1 명과 야구에 대해 잘 모르는 3 명이 모여 프로야구와 얽혀 있는 다양한 논쟁거리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사회자 1 명을 포함한 4 명의 학생들은 철저히 조사하고 생각하며 토론을 펼쳤고, 때로는 이들의 의견이 대립하기도, 통합되기도 했다.

첫번째 주제는 앞에서 다루었던 대로 심판의 자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 주제는 '오심을 내린 심판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는가?' 였다. 찬성측은 심판도 경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징계를 찬성했고 반대측은 심판 판결의 질을 높이는 제도가 정착 중에 있으며 오심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토론이 진행되며 양측은 심판의 오심이 경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며, 쓰리 아웃제를 도입하고 심판의 판단능력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이후 사회자와 교수님께서 징계에 대한 정의와 징계를 받는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등의 추가적인 질문을 하며 토론을 계속 이어 나갔다.



두번째 주제는 응원가로 쓰이는 곡의 저작권 문제였다. 몇 년 전 프로야구계는 응원가 저작권 문제로 떠들썩 했고 이 때문에 수많은 응원가가 다른 곡으로 바뀌고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되었다. 토론에 앞서 3조가 함께 관람했던 야구경기의 홈팀인 삼성 라이온즈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선수의 등장 곡에 쓰였던 노래들이 저작권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작곡가들에게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후 삼성은 응원단장의 자작곡을 위주로 응원가를 바꾸게 되었다. 프로야구 경기 중 응원을 위해 쓰이는 노래에 동일한 저작권법을 부여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찬성측은 야구장에서 쓰인다는 것 자체가 상업적인 용도라고 생각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반대측은 이미 사용료를 지불한 상태에서 저작권권 때문에 돈을 더 내는 것은 불합리하며 응원가로 쓰이면서 노래가 일부 변형되는 것은 처음 허락을 받았을 때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세번째 주제는 매너 없는 관중을 제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였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30년이 지나며 과거와 같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경기장에 난입하는 등의 과격한 관중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너 없는 관중은 경기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토론을 진행하던 날 오전에도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경기 중 투수 앞에서 옷을 끌어올려 가슴을 보인 여성이 영구 퇴장을 당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야구장을 찾는 관람객이 정말 많다는 점과 표를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영원히 퇴장을 시키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3명의 학생들은 각자가 생각한 방법에 대해 토의했는데, 보안요원을 늘려서 감시하는 인원을 늘리지는 방법, 폭행 등의 상황에서는 즉시 퇴장을 시키자는 방법 등이 나왔다.

원래 이 수업의 의도는 인생에서 두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예상보다 학생들의 의견 일치율이 높았기 때문에 영화, 스포츠 경기, 연극 관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의대생이라는 신분 특성상 항상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의 변형된 방식은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는 입장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토론이 진행되는 와중 학생들은 의견을 옹골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회자나 교수님의 질문에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과 상대의 의견을 듣고 반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이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뜻 깊게 느껴졌다. 야구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야구 내, 외적인 논란은 항상 편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심판의 오심이 때로는 분하기도 하며, 때로는 내가 응원하는 팀에게는 찬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가 잘못된 줄은 알지만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팀의 선수로 받아들이고 응원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학생들이 야구에 대한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내는 것을 보며 나 역시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투수가 언제나 직구로만 아웃카운트를 잡지 않듯이 우리 인생의 선택과 의견에서 언제나 한가지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스트라이크를 잡아내는 변화구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업이었다.

## 의사와 전쟁터,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트로이 전쟁부터 시리아 내전까지. 인류 역사는 크고 작은 전쟁과 함께했다. 평소부터 전쟁사에 관심있던 기자는 김홍태 교수님의 '전쟁터의 의사들' 조를 취재하게 되었다. 마침 기자가 취재를 간 날은 특별한 손님이 오는 날이었다. 현재 강원도 화천의 부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중이신 한동훈 대위님으로, 08학번 선배님이시기도 하다. '전쟁터의 의사들'이라는 조 주제와 가장 가까운 분이셨다.

수업은 김홍태 교수님이 해주시는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국방TV의 '토크멘터리 전쟁사'라는 유명부대\*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시며, '전쟁 자체보다 그 시대의 시대상, 그리고 전략들에 관해 공부하는 것'이라고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셨다. 이외에도 중간중간 전쟁관련 영상들을 보여주셨다. Band of brothers에 나온 의무병 시나리오에서는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의 생사를 치열하게 붙잡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다.

\* 유명부대 : 2차 세계대전때 미군에서 미술가, 광고업자, 건축가 등으로 구성되어 모조 대포, 전차, 전투기 등을 만들어 부대가 실재하는 것처럼 연출한 부대.

영상이 끝나고, 한 대위님께 대한민국 군의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군대의 의료체계와 생각보다 열악한 진료상황을 주제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대대나 연대 단위로 군의관이 한 명씩 배치되는데, 약의 종류도 충분하지 않아 양호실 수준의 진료만 가능하다고 한다. 사단 의무대는 지위상 2차 병원이지만 X레이나 CBC 등 아주 기초적인 검사만 가능하고, 3차 의료기관인 군병원에 가야 제대로 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마저도 군병원은 언제나 병사들로 미어터져서, 늦게 도착한 병사는 하루종일 기다리다가 진료도 못받고 돌아가기도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민간 병원에 가기를 원하는 병사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아팠다. 이외에도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하는지 (부상/전사 등 환자 분류와 응급치료가 주된 업무라고 말씀하셨다.), 군의관으로서의 처우는 어떤지 (부대마다 너무 다르다고 말씀하셨다.)등등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해주셨다.

취재기자

-이호성





마지막 주제는 좀 민감한 주제였다. 군병원에서 오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봤다. 선배님의 대답은, 어디에 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정신과 가야한다고 할 때 Neck stiffness를 확인해서 뇌수막염을 찾아내는 의사도 있다고 하셨다. 결국 문제 되는 소수가 뉴스에 나오고 사회적 인식을 나쁘게 만들 뿐, 실제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하셨다.

김흥태 교수님, 한 대위님과 시간을 통해 전장에 있건, 부대에 있건, 병원에 있건, 의사의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느꼈다. 병원과 전장의 가장 큰 공통점은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있는 공간이라는 점일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담긴 전쟁사 속에서 어떤 의사가 될지를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

군의학관의 복무기간은  
36 개월이다.

## 위인들이 사랑했던 와인의 세계

술은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독특한 음료이다. 그 중에서도 와인은 매우 역사가 오래된 술이다. 6 천만년 전부터 포도가 존재하였으며 포도를 재배한 이후 오랫동안 사람들은 와인을 마셔왔다. 중세에 들어서 기독교가 와인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확고한 지위를 가진 와인은 프랑스 대혁명을 거쳐 대량생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많은 철학자와 문학가들이 와인을 사랑하고 작품에 담았으며 의미를 부여했다.

---

보통 와인의 도수는 5%내외이다.

프랑스 르네상스의 거장 라블레의 작품에선 거인이 술병의 신에게 들은 '마셔라' 라는 신탁을 받고 감추어진 진리를 찾아 나선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절대권력과 기독교가 숨기고자 했던 '자유' 라는 감추어진 진리를 찾고자 하였으며 와인을 곁들인 저녁식사 때에 활발한 철학, 정치, 문학,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다. 루소는 와인을 예찬하였으며 괴테는 무인도에 가져갈 세가지 물건에 넉넉한 와인을 포함시킨 일화로 유명하고, 음악가 베토벤은 죽을 때 와인을 마저 마시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으며, 정치가 처칠은 거의 매일 샴페인과 시가를 즐겼다.

세계의 와인 조에서는 이러한 와인에 대해 공부해보고 시음해 봄으로써 와인과 친숙해지고 더욱 즐기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와인 조에서는 모임 때 마다 와인에 대해 각 조원이 조사해오고 발표하며 마지막에 교수님이 가져오신 와인을 시음해보며 공부를 마무리하였다. 취재하러 갔을 때에는 유럽과 신대륙의 와인의 특징, 간단한 역사, 등급 등을 발표하였다.

각 나라와 와인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다루자면, 프랑스 와인은 가장 유명하며 와인의 대표격으로 양조장명과 품종을 표기하여 나타내며 양조장의 명성이나 포도재배 지역이 중요하다.

---

취재기자

-전우주

먼저 이탈리아의 와인은 프랑스에 비해 고급 와인이 적긴 하지만 제법 훌륭한 와인들을 갖고 있다. 스페인은 스페인 내전 때에 많은 와인 기술자들을 잃었고 그로 인해 중저가 와인들을 주로 생산한다. 또한 Wine war 라는 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포르투갈의 와인은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스페인과 비슷하다. 독일 와인은 수도원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

---



모든 의료인문테마스쿨  
News letter 는  
[medicine.cu.ac.kr](http://medicine.cu.ac.kr)에 있습니다

신대륙 와인은 유럽 와인과 다르게 양조장이나 지역명은 적지 않고 포도의 품종을 병에 적는다. 미국의 와인은 캘리포니아 북부의 나파밸리라는 특정한 작은 지역에서 생산된다. 나파밸리는 윈도우 컴퓨터의 초기 화면 배경으로 지명을 모르는 사람도 한번쯤 보았을 지역이다. 칠레의 와인은 주로 저가형 와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급 와인도 생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나 또다른 신대륙인 호주 등에서도 중저가의 다양한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각 나라들은 또한 고급와인 생산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일본의 신의 물방울 드라마를 보며 피노누아 품종의 와인을 시음하였다. 옛날 작품이다 보니 드라마의 내용은 진부했지만 그러한 드라마가 나올 만큼 일본 내에서 와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최근엔 우리나라도 와인에 대한 관심은 많아졌지만, 아직 소주나 맥주에 대한 사랑에 비하면 부족한 감이 있다. 와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인 만큼 국내에서도 와인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세계의 와인 조의 취재를 통해 와인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더욱 잘 이해하여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알고 마시면 더 즐거운 와인, 여러분도 한번 와인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